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이 책은 오브제, 키치, 페미니즘, 타자, 테크놀로지, 쿼어와 캬프, 몸, 유목주의, 재현과 서사 등의 대중문화와 인문학적 지층에 맞닿아 있는 현대미술의 지점들, 담론의 지점들에 입문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고충환 지음/씨앗북스 발행



맛있는 책읽기

출판 전문기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일간지 기자가 마음 가는 대로 손닿는 대로 읽고 쓴 소금은 '별난 책읽기' 책이며 책의 숲에서 오솔길을 걷는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잘 알려주는 책이다.

- 김성희 지음/한국마케팅연구소 발행



왜 공공미술인가

갓 태어난 공공미술에게 우리 여건은 매우 가칠고 험난하다. 공공미술을 '건축물을 장식하거나 빈 공공장소를 품 나게 채우는 미술'쯤으로 여기고 있다. 저자는 왜 공공미술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공공미술인지 등 공공미술에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답들을 찾는다.

- 박상철 지음/학교재 발행



대중예술과 미학

저자 특유의 생생한 말투와 말 그대로 대중적인 이야기 전개방식으로 대중예술과 미학이라는 이론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을 통한다면 대중예술의 미학을 이해하는데 독자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성봉 지음/일빛 발행



속마음을 들킨 위대한 예술가들

예술가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작품들을 남긴 것일까. 가끔씩 떠오르는 이 같은 질문을 속마음으로 열어보는 책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한결같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킨 위대한 예술가들의 참모습을 이 한편의 책으로 만나보자.

- 서지형 지음/시공사 발행



이유 있는 아름다움

이 책은 우리의 근현대 작가 11인의 작품에 조형된 아름다움의 이유를 미술심리학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집중조명 한다. 그들 작품에 나타난 양식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미의 효과를 명쾌하게 밝혀준다.

- 지성현 지음/아트북스 발행



세간의 산을 찾아서

예술과 문학을 아름답게 교차시킨 이 책을 통해 거장의 자취가 미처 한 편의 그림처럼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섬세한 시적 묘사로 압축되는 한트케의 글답게, 세간의 산을 탐험하고 거장의 예술을 탐색해가는 여정이 정차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 페터 한트케 지음 / 이종수 옮김/아트북스 발행



FLOW인양현프로젝트 보고서

이 책은 하천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미술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도시, 환경, 생태, 생활의 문제를 예술적 사고와 행위를 통해 공공예술의 영역을 확대한 보고서이면서 독립적인 단행본으로 기능한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을 위한 실용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 안양천프로젝트 운영위원회/아트미디어 발행



새로 그린 매란국죽 1·2

전통을 계승하여 시대에 맞는 사군자를 재창조해 낸 젊은 화가의 노력에 생생한 욕성을 더해 공부하는 학생에게나 사군자를 배우는 사람에게 바른 교본이자 지침이 되는 책이다. 또한 화제(畫題)의 소개는 이 책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다.

- 문봉선 그림·지음/학교재 발행



중국화파총서

이 책은 화파의 사조인 황친화파와 사회화파에서 시작하여 해산화파, 영남화파 등 각 화파의 생생에서부터 발전상황, 그 영향과 폐단 등을 살펴보고 화파의 창시자와 대표화가들의 일대기 등을 짚어준다.

- 공옥경·이만재 지음/미술문화 발행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책은 시작부터 도발적인 선언을 한다. 베르사유 궁전, 니이케상, 중국의 봉천 그림 등의 사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이 모든 작품들이 장작 미술이 아니다' 라고 한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복을 시도해 저자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지음·박이소 옮김/현실문화연구 발행



하이쿠와 우키요에, 그리고 에도 시절

일본 전통시의 하나인 하이쿠는 흔히 꽃벌레에 비유된다. 풀과 침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읽으면 따끔하면서도 달콤하다는 것이다. 이미즈즈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준 우키요에 등 일본의 사회와 역사를 조감 할 수 있는 그림들과 함께 읽는다면 그 뜻과 맛은 배가될 것이다.

- 마쓰오 바사, 요사 부스 외 지음·김향 옮김/다빈치 발행



스트로보

현재 50살이 된 사진작가, 기타카와를 주인공으로 살아 한 편 한 편 이야기로 그의 앨범을 거슬러 올라가며 펼쳐지는 연작 단편집이다. 이야기마다 '바로 이 컷'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을 담고 있는데, 독자들은 이야기 속 사진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느낄 것이다.

- 심포 유키치 지음·권일영 옮김/민서각 발행



구석구석 재미있는 세상

이 책은 아직 세상을 두루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수한 삶의 현장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흥미진진한 이유는 다양한 갈고슴만큼이나 다채로운 삶이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 시라 해리스 지음·서범희 옮김/책그림 발행